

[발표 1]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복지의 개념화 - 문화의 용례에 따른 해석학적 접근 -

최옥채(전북대)

1. 문제 제기

이 연구는 우리 국민이 문화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근간으로 사회복지실천 측면에서 문화복지의 개념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복지의 개념을 내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한 가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문화의 용례를 중심으로 문화복지의 개념을 모색하려는 것은 언어학 측면에서 연구자의 사유는 항상 우리가 일상사의 질서를 위해 구사하는 언어적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이다(임호일, 2001:151).¹⁾

2.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일상에서 문화의 용례를 찾기 위해 신문을 포함한 대중매체, 지하철 및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한 공공시설, 서적, 간판 등에서 사용한 문화의 쓰임새를 수집하여 자료화하였다. 한편 2007년에 발행된 『114 전화번호부 전주엽중편』에서 ‘문화’를 사용한 상호를 파악하여 그 주인들과 ‘문화’로 이름을 지은 이유를 알아봄으로써 이들이 생각하는 문화의 의미를 찾아 수집했다. 이와 같은 자료 수집은 2006년 초부터 약 1년 6개월간 이루어졌다.

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해석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 분석은 덴진(N. Denzin)이 제시한 해석적 과정의 5단계²⁾ 중 자료의 분석 과정인 ‘분리하여 묶기’, ‘전체 짜 맞추기’, ‘의미 찾아 부여하기’에 중점을 두었다. 즉 ‘분리하여 묶기’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활용한 문화를 수집한 것을 서로 분리하여 한 데 모으고, ‘전체 짜 맞추기’에서는 문화의 용례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핵

1) 예컨대 같은 뜻임에도 “내 별명은 ‘울프’다”고 하는 것과 “내 별명은 ‘늑대’다”고 할 때, ‘경매’와 ‘옥션’이라는 도메인으로 홈쇼핑 사이트를 개설했을 때 일상에서 이해하는 의미가 크게 달라 생각의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2) 덴진은 해석적 연구 과정을 deconstruction, capture, bracketing, construction, contextualization 5단계로 구분하여 소개했고, 이 전체 과정에서 자료의 본격적인 분석은 bracketing부터 이루어진다(김지혜, 2003:105 재인용).

심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 찾아 부여하기'에서는 일상에서 활용되는 문화가 품는 의미를 찾아 정리하였다.

3) 연구의 윤리와 엄격성

해석이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해석자가 어떤 사람인가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조용환, 1999:50)라는 맥락에서, 특히 자료 분석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후버만(A. Huberman)과 마일스(M. Miles)가 강조한 '과학적인 해석 절차'³⁾를 따르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분석과정에서 사회복지실천과 관련지어 해석했던 점을 거듭 수정하여 오직 문화의 용례에 집중하여 진행하였다. 실제로 용례를 분석하면서 문화의 의미 이외에도 '신문기자는 일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야 함', '사용자와 출처가 같은 경우가 있음',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원자료를 세밀히 읽어 파악함', '신문기자들은 매우 다양하고 기발하게 문화를 사용함' 따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

3. 문헌 고찰

1) 문화와 문화의 용례

문화는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며, 그 삶이 표현하고 있는 행위와 행위를 이루어 내는 전 과정의 사고, 그에 관련된 삶의 현상(전경수, 1999:7), 사람들의 행위 뒤에 놓여 있는 가치, 신념, 세상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된 것이며 그러한 요소들이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그들의 공유된 인식이 다시 그들의 사회적 행위에 반영되어 전체 사회성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유태용, 1999:11), 삶 내지 사회의 목적, 의미, 가치가 표현된, 인간의 해석이 가해진 것(원승룡·김종현, 2001:50 재인용), 인류의 역사와 함께 생성된 정신적·물질적 양식의 총체(정철현, 2005:5)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사전은 문화를 인지(人智)가 깨어 세상이 열리고 생활이 한층 편리하게 되는 일, 진리를 구하고 끊임없이 진보·향상하려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 문덕(文德)으로 백성을 가르쳐 이끄는(두산동아 사전편찬실, 1994:753)으로 정의한다. 요컨대 문화는 일상의 갖가지 활동거리를 통해 송고한 정신을 함양해가는 과정에서의 모든 노력을 의미함으로써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복지의 개념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화의 정의를 기초로 수집한 각 문화용례의 적절성을 규명함과 동시에 문화의 의미를 좀더 깊이 이해할 정리를 필요가 있다.⁴⁾

2)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와 문화복지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는 인간의 삶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전적인 영향을 주어 그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하는 활동거리를 둘러싸거나 촉진하는 정신적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에서는 이미 문화가 인간 집단을 포함하여 제도, 언어, 종교 이념, 사고의 습관, 예술적 표

3) 후버만과 마일스는 해석이 한 개인의 것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유되기 위해, 1) 확실하지 않은 주장을 배제할 것, 2) 주요 발견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 3) 대안적 설명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 4) 반증자료가 있는지 체크할 것, 5) 제보자와 전문가에게 보여 타당성 검토를 받을 것 5가지를 강조하였다(조용환, 1999:51 재인용).

4) 예컨대 정수일(2001:23)은 "문화는 문명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이며 그 양상이다. 문명과 문화의 관계는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총체와 개체, 복합성과 단일성, 내재와 외형, 제품과 재료의 포괄적 관계다"고 하면서 문화를 문명과 구분하여 문화를 소개하나, 이 역시 일상에서 사용되는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 사회적 개인 간 관계 안에서 세대를 거치며 이어받은 생활 형태의 총체(Morales & Sheafor, 2001:449 재인용)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의는 결국 사회복지실천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삶의 질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실천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는 구체적인 명사 뒤에 붙어 그 명사가 지니는 문화를 일컫는데, 이때 문화 앞의 명사는 사회복지실천과 밀접히 관련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농촌체험을 통해 얻는 농촌 문화, 노인의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노인의 여가 문화, 아동의 건강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놀이 문화 따위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문화에 관한 개념은 자아의 자유로운 향상 발전을 강조하는 문화주의 측면에서 문화는 교화, 계몽, 인격완성과 같은 의미로도 이해한다(김진송, 1999:36)는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화복지는 국민의 미적 감수성과 문화적 창의력을 계발하여 문화소외층과 일반 국민의 인간다운 문화생활(문화활동 및 관광, 스포츠,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전체 국민의 문화생활의 수준을 제고시키려는 정부·민간의 활동(현택수, 2006:106)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복지는 궁극적으로 조화로운 복지사회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실현을 지향한다(구혜영, 2004:254). 그러나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을 생각하면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복지는 사회복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문화적 향유를 촉진하여 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꾀하는 사회복지의 한 실천 영역(최옥채, 2006:15)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문화복지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정의를 일상에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규명이 필요하다.

3) 문화복지 관련 선행연구

사회복지학에서 문화에 중점을 둔 연구로 박병현(2005)의 복지국가 발달의 문화적 분석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앞에서 소개한 주재현(2004)의 연구를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성장은 복지국가 발달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복지국가 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의 고유 문화나 가치라는 관점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한 나라의 사회복지의 수준이나 사회복지제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에 관한 깊은 이해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문화복지의 개념을 정리하지 않았다.

4. 연구 결과

1) 문화 용례의 특성

(1) 사용 수준이 다름

이들 수준은 4가지로 드러났는데, 1) 적용(사용자가 문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한 수준), 2) 남용(문화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확대해 사용하거나 한 부분에 한정하여 축소해 사용한 수준), 3) 무용(특별한 뜻이 없이 사용한 수준), 4) 오용(문화의 의미를 잘못 사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시류를 따름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당시에 앞장서거나 본이 되어 유행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르기

위해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 같은 사용자의 용례가 다름

같은 사람이 한 문헌에서 문화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문화라는 용어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2) 문화의 용례

문화의 용례로, (1) 전통, (2) 정신적 바탕, (3) 정서, (4) 발전한 것, (5) 고급스러움, (6) 고유함, (7) 일상, (8) 생활, (9) 생활 양식, (10) 의미 있는 일상거리, (11) 예술 감상 및 여행이 드러났다.

3) 문화 의미의 속성

(1) 정신체

문화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깊은 정신을 바탕으로 한 특정 행위들이 누적되어 형성되는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당시 사회상의 영향을 받아 추구하려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다종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간다. 이와 같은 문화의 속성은 “고급문화이건 대중문화이건 창작이 독립적이지 않은 것, 자유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것은 문화의 형태가 아니고”(김용석, 2000:197), 그래서 “궁극적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문화적 창조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화관(文化觀)을 갖게 한다”(김용석, 2000:191)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지향체

문화는 나름대로 이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속성이 있다. 문화에는 일상을 계도하는 것을 비롯하여 격조 있는 행동과 고급스러운 생활로 이끌어가려는 노력이 스며들어있다. 그래서 각 문화는 선의의 고유함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의 속성을 문화가 다듬어지고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를 형성하는 데 신화가 영향을 미치고, 문화는 종족을 파괴하기보다는 보존하기 위해 생겨난다(고병헌·이병곤·임정아, 2006:122)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가 무가치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 뜻도 없이 문화라는 용례가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없다.

(3) 활동체

문화는 이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갖가지 생활을 통해 이룩하는 속성을 지닌다. 문화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으로 창조·유지된다. 이는 문화가 인간의 경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본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4) 도구체

문화에는 구체적인 도구를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속성을 지닌다. 이 속성은 앞에 언급한 활동체 속성의 구체적인 수단이 되는 속성이다. 예컨대 문화는 잡다한 일상거리를 비롯한 예술 감상이나 공연을 관람하거나 여행 따위를 함으로써 형성된다.

5. 논의 및 제언

1) 문화복지의 정의

앞에서 정리한 문화의 용례와 문화의 속성을 적극 반영한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문화복지는 우리의 전통에 스며있는 정신을 지향하면서 사회복지실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의 보람된 삶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활동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문화복지의 목적

문화복지의 목적은 개인이 문화 관련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함은 물론 그 개인이 속하는 가족, 조직, 사회, 국가에 유익한 전통을 창조·유지하게 하는 데 있다. 이는 물론 “문화는 다수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김용석, 2000:286)는 문화가 추구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복지는 단순히 개인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끝내 국가가 다시 개인에게 더욱 발전된 문화 활동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문화복지의 대상

문화복지의 대상은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어야 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큰 방향이 선별주의 입장에서 보편주의 입장으로 옮겨가야하는 상황에서 문화복지의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 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문화복지의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와 새로운 일반 대상자를 아우르는 특성을 띤다. 아울러 이들 대상은 계층별로 구분되어 문화복지 서비스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

4)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세상에는 일상용품과 예술작품, 사회문화적 전통, 도덕과 법적 습관과 같은 것이 침전되어 있다(김진, 2005:36)는 측면에서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전통에 스며들어 있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일상의 활동거리로 만들어져야 한다. 아울러 문화에는 역동성이 기저를 이루므로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신속한 변환이 가능할 수 있게 소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문화복지 프로그램 실천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실천가들은 무엇보다도 문화의 일상적 개념을 일상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사회복지실천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기관(시설)만이 주도하는 것보다 철저히 지방정부와 여타 단체나 기관 및 시설과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 예컨대 문화나 예술을 관장하는 정부의 부처나 지방의 주요 단체, 주요 문화재를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종교 단체 및 시설 측,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시설 운영자와 함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은 활동은 사회복지의 지방화를 맞이하여 시·군·구와 같은 지방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